

52:13-53:4,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2:13부터 이사야 53장까지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한다. 특히 53장은 고난 당하실 한 인물에 대해 ‘그는’(2절), ‘그는’ ‘그를’(3절), ‘그는’ ‘그는’(4절), ‘그가’(4번)(5절), ‘그에게’(6절) 등으로 말한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놀랍게 성취되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¹⁾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종 메시아의 형통하심과 존귀케 되심을 선포하신다. 여호와와 그의 종인 메시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다 이루시고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14-15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그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시고 그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신다.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은 고난을 통해 이루실 일이다. 메시아의 형통하심은 곧 그 고난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메시아의 고난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메시아께서 그의 피, 곧 속죄의 피와 속죄의 복음을 열방에 뿌릴 것이다. ‘열방을 놀란다’는 원어(얏제 고입 **וְיִנְדָּבְרוּ**)는 ‘열방에 뿌린다’는 뜻이다(KJV, NASB, NIV). 무엇을 뿌린다는 뜻인

1) ‘형통하다’는 원어(사칼 **וַיִּשְׁתַּבַּח**)는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으나(KJV, NIV), ‘형통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성경의 많은 예가 있고(신 29:8; 수 1:7, 8; 왕상 2:3 등)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나아 보인다(NASB).

가? 그것은 다음 장(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의 피, 곧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속죄의 복음을 만방에 뿌리는 것 즉 그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 열왕들은 그를 인해 입을 닫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53장: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사역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과 그 속죄사역은 모든 성도와 전도자들이 전하는 내용이며 전해야 하는 내용이다. 메시아의 속죄사역은 복음의 중심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했다(고전 1:22-24), 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했다(고전 15:3).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외모를 예언하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조금 상상케 만든다.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시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시다고 묘사되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艱苦)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疾苦)를 이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원어(이쉬 마 크오보스 תִּיבֹאֲבֹד וְאִי)는 ‘고난의 사람’(a man of sorrows)(KJV, NASB, NIV)이라는 뜻이다. 또 ‘질고’라는 원어(콜리 לְבָדָה)는 ‘병’ 혹은 ‘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간고,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 곧 대속(代贖)의 고난이심을 증거한다.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셨다고 보인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피부가 곱고 이목구비가 조화로운 자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곱고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지 않다면 그 외적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 즉 그의 외모, 학력, 재산,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그의 가치를 판단치 말고 그의 경건성과 그의 도덕성과 인격성이 더 가치 있는 요소임을 알고 그것으로 그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고난의 종이셨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했다. 그의 모친 마리아는 마굿간에서 그를 낳았고 그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눅 2:6-7).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고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마 2:13-15). 예수께서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다. 또 그는 삼십 세가 되어 전도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마 8:20),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마 20:18-19).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대로,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였고 그가 잡히시던 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 그는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파송한 자들에게 잡히셔서 공회 앞에서 침뱀음과 주먹과 손바닥으로 침을 받으셨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 사형장에서 겉옷과 속옷의 벗김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고전 1:23),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5:12)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셋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본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교훈하셨다(눅 9:23).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행 14:22),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다(빌 1:29). 히브리서 13:13은,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하였고, 베드로전서 4:12-13은,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교훈하였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심지어 비방과 학대를 두려워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